

‘인천인천’이 되어야



‘문화도시 인천’이 되기 위하여

‘문화도시 인천’. 이 문구만으로도 인천이 어떤 도시가 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도시가 무엇인지, 왜 문화도시가 중요한지, 어떻게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문화도시 인천’은 단순히 문화 시설을 늘리고, 문화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도시란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인천은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이다.”라는 문구를 보면, “문화도시 인천”이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문화도시 인천’은 단순히 문화 시설을 늘리고, 문화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도시란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인천은 문화가 도시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도시이다.”라는 문구를 보면, “문화도시 인천”이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